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

2022년 경기북부청 2차 합격수기 13기 백○○

❍ 안녕하세요. 2022년 2차 경찰행정 특채로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입교를 기다리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3기 백○○입니다. 저는 수험기간도 길지 않고, 최종 합격 인원이 3명인데 필기시험에서 딱 3명만 붙은,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남은 시험을 본 거라 전 과정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□ 필기시험

❍ 필기시험은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터넷 강의로는 집중이 잘 안돼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, 어떤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점 등을 꼽으며 인터넷 강의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미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으신 분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 하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본인의 방법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❍ 제 필기시험 준비는 80% 이상이 학교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. 저는 외부의 유혹에 약해서 졸업 후 외부와 단절된 채 철저히 수험생활을 하는 것보다 3년 동안 느긋하게 수험생활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.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 몰두하는 수험생활이 아닌 대신,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 남아 중간·기말고사의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가 아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또한 방학 때는 꼭 학교에 남아 특강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.

❍ 졸업한 후에는 필기시험까지 2개월 남았을 때라, 새로 기본서를 보는 대신 기출 문제를 세 번 풀어보고,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매해서 그것도 세 번 풀어봤습니다. 학교에서 기본 지식을 쌓아둔 상태라면 기본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, 아직 외우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 체크해서 그 부분만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.

❍ 3년의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 학기마다 배우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공공인재관이나 고시반, 그 외 자기가 선호하는 공간에서 추가로 공부를 한다면 조급하지 않게 전공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특히 필기시험을 볼 때 시간에 쫓기는 일이 많은 만큼, 공공인재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서 통제된 환경에

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감각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□ 체력시험

○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 체력은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과목입니다. 저는 그 전에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급하게 준비하고 체력시험을 보게 되어 무리를 한 바람에 허리 통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어요. 아마 과락 점수만 나오지 않으면 합격하는,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바로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. 오래달리기는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달리는 분들 따라서 뛰게 되어 웬만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실내 종목은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요.

□ 면접시험

○ 면접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,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점수가 나오는 시험도 아니라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면접시험을 준비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면접 학원이나 스터디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찾아뵈었더니 면접에 대해 전체적인 대답의 틀을 잡아주시고 요령 있게 대답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경찰 면접 교재를 읽으면서 교수님께서 잡아주신 틀에 살을 붙여 자기만의 소신을 담아 대답하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○ 면접시험은 완성된 경찰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될 자질이 충분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, 전공 지식이나 현재 경찰 내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달달 외우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보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, 건강한 경찰관으로서의 자세로 소신 있게 대답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

○ 졸업하고 수험생활에 몰두하려고 하면 쉽게 나태해지고, 잔잔하게 드는 미래를 향한 걱정이 쌓여 후에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. 미래에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가 덜 남고 한결 수월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. 목표에 다다를 계단을 쌓는 게 힘들고 고되겠지만, 가끔 쉬어가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새 목표를 향한 마지막 층계에 다다라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후에 경찰 동료로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!